

제주도 설화 연구

—풍수설화를 중심으로—

김 문 기*

차 례

- I. 서론—설화 분류의 개관
 - II. 제주도 전승설화의 유형
 - 1. 장사설화
 - 2. 서사무가의 수용, 기타
 - III. 풍수설화의 양상
 - 1. 음택풍수설화
 - 2. 양기풍수설화
 - 3. 양택풍수설화
 - IV. 결론
- * 부록 1, 2

I. 서론—설화 분류의 개관

서구에서 그림(grimm)형제에 의해 口碑文學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각국의 많은 학자들이 설화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였다.1)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아르네-톰슨의 『the types of the folktale』에서는 설화

* 국어국문학과 4년

1) 韓國口碑文學會編, 『韓國口碑文學선집』(일조각, 1984), 7~17쪽.

를 animal tales, ordinary folk-tales, jests and anecdotes, formula tales, unclassified로 나누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세계 각국의 설화 분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²⁾

한국의 경우, 손진태는 민족설화는 민족 사이에서 說話되는 신화·전설·우화·소화·잡화의 총칭³⁾이라 하였고, 조운제는 신화·전설·설화로 구분⁴⁾하였고, 김열규는 종래의 설화·신화·전설로 불려진 敘事的 陳述이라는 특성을 갖는 민간전승을 일괄하여 민담⁵⁾이라 하였다. 한편 최인학은 『韓國昔話의 研究』(동경:弘文堂, 1976)에서 ①동물석화, ②본격석화, ③소화, ④형식담, ⑤신화적 석화, ⑥기타의 여섯 항목으로 분류한다. 조희웅은 ①동(식)물담, ②신이담, ③일반담, ④소화, ⑤형식담의 5개 항목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26개 항목으로 나누어 2차적 분류로 삼았다.⁶⁾ 그리고 근래들어 조동일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총 82권에 수록된 설화를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 방법은 설화 분류의 기본 단위인 유형은 자체로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인 상위유형, 그보다 더 세분된 하위유형과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여 첫 번째 단계의 상위유형, 두 번째 단계의 상위유형, 세 번째 단계의 상위유형, 그리고 하위유형으로 나누면서 각각 번호를 부여 하였다. 총 서른 두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눔으로써 모든 설화를 이 체계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안도 하위유형간의 이종소 속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이삼중으로 중복되어 어느 유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애매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⁷⁾

2) 위의 책, 9~10쪽.

3)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최운식, 『韓國說話研究』(집문당, 1991), 15쪽.

4) 조운제, 『국문학사』(동국문화사, 1953). 최운식, 위의 책 15-16쪽.

5)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 연구』(일조각, 1971), 26쪽.

6) 위의 책, 17~19쪽.

7) 임재해, 「설화 유형분류의 평가와 활용」, 『구비문학』9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이 글에서 조동일의 이와같은 분류안이 갖는 허점이 자세하게 지적되었다.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3분하는 것이 세계적인 통례라고 하면서 이에 따른 장덕순도 이 셋이 서로 넘나들기 때문에 확연한 선을 긋는 것이 곤란하다⁸⁾고 하여 삼분법의 한계를 실토하고 있다.

설화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 통일된 분류안이 없어 아직까지는 신화, 전설, 민담의 삼분법이 대체로 우세한 가운데 학계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삼분법하에 설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설에 있어 그 분류 또한 설화의 분류만큼이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장덕순은 전승장소, 발생목적, 설화대상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여, 전승장소에 따라 지역적 전설, 이주적 전설로, 발생목적에 따라 설명적 전설, 역사적 전설, 신앙적 전설로, 설화대상에 따라 사물명칭, 신앙행위로 분류⁹⁾하고 있다. 이외에 최인학은 ①발생 및 설명전설, ②역사적 및 지방전설, ③신화적 및 신앙전설, 그리고 보유편의 네 가지로 나누고 이하 28개의 작은 항목을 설정하였다.¹⁰⁾ 또한 문화인류학회에서 내놓은 「한국민속자료분류표」에서는 증거물에 따라 자연물과 인공물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보충으로 인간·동물전설을 제시하였다.

설화의 유형분류가 확연하게 자리잡지 못함으로써, 그 하위유형으로 제시된 전설의 경우에 이와같은 분류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물론 인문과학이 자연과학과 달리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인문학만이 갖는 이러한 고충을 이해하더라도 지금까지 제시된 분류안을 통해 좀더 최대공약수인 분류안을 마련하여야 할 요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 글은 설화의 새로운 분류를 위한 시도가 아니라, 제주설화를 유형화 하여 제주도에 전해지는 설화가 어떠한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주설화의 특징, 혹은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설화가 제주

8) 장덕순의, 『口碑文學概說』(일조각, 1994), 14쪽.

9) 위의 책, 41~43쪽.

10) 최인학, 「한국전설의 유형과 motif의 연구」, 『한국학연구』1(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도민에게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으로 하였다. 독자적인 분류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분류안에 따라서 기존 채록된 제주도의 설화를 유형별로 살펴본 다음 풍수설화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설화가 채록되었다.¹¹⁾ 그러나 채록자의 임의적인 분류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통일된 분류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진성기는 『남국의 전설』에서 전설을 설화와 동일시하여 무속적 신화, 자연적 전설, 토속적 민담, 역사적 설화로 나누었다. 그의 또다른 저서인 『남국의 민담』에서는 무속적 옛말, 자연적 옛말, 토속적 옛말, 역사적 옛말로 나누어 민담과 설화, 그리고 옛말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동일시 하였다. 현용준은 『제주도 전설』에서 전설을 자연전설, 역사전

11). 지금까지 채록되어 간행된 제주설화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단, 각 마을에서 간행되는 마을지나 향토지는 제외하였다.

진성기, 『남국의 설화』(박문출판사, 1959); 『남국의 전설』(일지사, 1968); 『남국의 민담』(형설출판사, 1976); 『남국의 신화』(아림출판사, 1964).

현용준, 『제주도 신화』(서문당, 1976); 『제주도 전설』(서문당, 1976); 『제주도 민담』.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전남, 제주편(평민사, 1992).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1981)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구비문학대계 9-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국구비문학대계 9-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제주도, 『제주도 전설지』(1985)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97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 부락지』 1~4(1989~1991).

이밖에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발간하는 『국문학보』 4~13집, 국어교육과 및 백록어문학회에서 발간하는 『백록어문』 창간호~13집, 그리고 두 학과에서 공동조사한 『학술조사보고서』 5~8집이 있다. 민속학에 관련된 학과가 제주도에 없는 관계로 양과가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학술조사 보고서를 통해 제주설화를 채록하여왔다.

위에 거론된 자료집들 가운데에는 동일설화의 이중채록이 있는 것도 몇 보이거나 대체적으로 전도에 걸쳐 다양하게 채록되었다.

설, 신앙전설로 나누었다. 현용준이 『제주도 전설』에서 설화를 나눈 이러한 분류안이 지금까지 정통적인 분류안으로 인정되어 사용되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현길언·현승환이 공동 집필한 『제주도지』 3권의 설화편에 의하면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고 전설의 분류에 있어 현용준의 분류안을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自然傳說: 山岳, 島嶼, 池沼, 平野, 巖石

歷史傳說: 忠孝, 烈女, 官員, 英雄, 異人, 名醫, 富豪, 壯士, 女傑, 建物, 石塔, 地名, 義犬, 墳墓

信仰傳說: 地官, 地形, 禁葬, 名墓, 神堂, 사신, 도깨비 등 俗信¹²⁾

전설의 분류는 지역별, 내용별, 대상물별 분류가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연구목적에 따라 더 다양한 분류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즉 설명하는 대상물에 따라 자연전설과 인공전설로, 전파분포에 따라 특수전설과 광포전설로, 證示物의 수에 따라 단일증시, 연쇄증시전설로, 전설의 내용에 미치는 시간성에 따라 설명전설과 예언전설로, 그리고 전설의 지역적 분포에 따라 국내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도 전설의 발생목적에 따라 설명적 전설, 역사적 전설, 신앙적 전설로도 구분한다.¹³⁾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설화나 전설의 하위 분류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류안이 나올 수 있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측면들을 갖고 있어 어느 분류안이 더 낫고 덜 중요한게 아니라 상호 분류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최적의 분류안을 시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제주도지』 3권(제주도, 1993), 1332~1333쪽.

13) 『한국 민속대관』 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80~85쪽에 걸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II. 제주도 전승설화의 유형

제주도 설화에는 인물전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중에는 장사전설과 풍수전설이 많다고 한다.¹⁴⁾ 필자가 기존 조사된 자료집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장사전설과 풍수전설은 많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서사무가를 수용하여 설화화된것도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아기장수전설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진척되었으나 풍수설화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풍수설화를 그 대상으로 하여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제주지방의 풍수설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풍수설화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연구된 제주설화관련 논문들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사설화

제주의 壯士설화에는 남성이 대부분이나 여성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별지의 표를 참고하면 총 102개의 壯士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남자주인공인 이야기가 79가지, 여성이 주인공인 女 장사 이야기가 23편을 차지한다. '부대각' 이야기와 '오찰방' 이야기는 男주인공인 이야기와 男妹 즉 女주인공 위주의 이야기가 각기 같이 전해지는데, 그 원형이 男妹壯士인지 아니면 男장사이야기에 여성이 추가된것인지는 자세하게 규명해야할 문제이다. 단, 주인공이 남성일 경우에는 육지부에서도적을 잡았다거나(오찰방), 수적을 혼내주었다거나(한면 한배임제), 혹은 현실의 도움을 얻지못해(막산이) 패배로 끝맺거나 대부분이 자아와 세계

14) 현승환, 「설화조사의 성과와 과제」, 『백록어문11』(백록어문학회, 1995), 176쪽.

15) 부록 참고.

의 대결을 보여준다. 반면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설화에는 '힘센 며느리', '신침 며느리 흥할망'처럼 단순한 들음들을 들어올려 힘을 보여준다거나, '오찰방 누이 이야기', '부대각 남매'에서처럼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 힘을 보여주는 등 세계와의 갈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¹⁶⁾ 이와 관련하여 힘센 여성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다고 하며, 그 이유를 노동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과 위치와 관련지은 연구¹⁷⁾가 나왔다. 그 연구에서는 힘센 여성이 많으면서도 단순히 힘만 세다는 점을 여성의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제주설화를 살펴본 결과 제보자는 대부분이 남성이다. 기존 채록된 설화의 자료집과 그에 기재된 설화의 수와 제보자별 성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문학보 4~13	122개	남 112개
		여 10개
백록어문 1~13	260개	남
		여 71개(13집제외)
학술조사보고서 5~8	89개	남 41개
		여 31개(17개는 성별파악 불가)
제주도부락지 3 (용수리, 오조리)	13개	남 (성별 불기입)
		여 (상동)
제주설화집성 1	217개	남 196개
		여 21개
한국구비문학대계	257개	남 228개
		여 29개(제보자는 5명)
제주도 전설지	255개	남 (未조사)
		여 상 동

16) 조동일은 일찍이 설화(전설)를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였다.

17) 허춘, 「說話에 나타난 濟州 女性考」, 『탐라문화16』(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한국 구전설화	62개	남 36개
		여 19개(7개는 파악불가)
한국 민속종합조사 보고서	11개	남 1개
		여 4개(6개는 파악불가)
제주도 전설	90개	남 82개
		여 3개(5개는 파악불가)
제주도 민담	107개	남 (未조사)
		여 상 동
남국의 전설	73개	남 (未분류)
		여 (상동)
남국의 민담	102개	남 79개
		여 23개
총 39권	총 1658개	남 775개
		여 219개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보자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성이며, 여성들은 이에서 제외된다. 민요에서의 제보자가 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인데, 이것은 아마도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여성의 노동과 관련되지않나 싶다. 본토의 설화제보자를 성별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주와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다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다.

壯士설화중 막산이, 논하니, 정운디, 새샘이 등, 굶주림에 타고난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들의 비극은 그들이 종이라는 신분보다 대식가라는 점에 있다¹⁸⁾는 점은 척박한 풍토에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제주민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일례를 들어본다.

정서방은 관가에 불러갔다. 죽이려는 눈치를 채고, 정서방은 '내 소원을

18). 임홍선, 『濟州島 說話에 드러난 濟州島民의 意識 研究』, 『제주교육대학은 문집』 13집(1983).

한 번만 들어 준다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라고 하였다. 그 소원이란 한 번 실컷 배불리 먹어 보고 싶은 것뿐이라는 것이다.(현용준, 『제주도 전설』)

제주의 壯士설화를 그 신분계층별로 구분하여, 노비장사와 일반장사로 나눌 수 있다면 노비장사에는 막산이, 논하니, 정운디, 새생이, 오찰방 등이 이에 속하고, 일반장사에는 심돌 부대각, 한연 한배임재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¹⁹⁾ 대부분이 성이나 직책 등을 쓰거나, 마을 이름을 쓰는 등 실명을 쓰는 예는 위에 거론된 인물들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찰방이야기는 부잣집이야기(소를 10여마리나 먹고 태어났다)이다. 오찰방 이야기를 통해서나마 배고픔을 달래야 했고, 이에 본토와의 적개심이 오찰방의 활약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방의 사람이라고 하여 찰방벼슬밖에 못했다는 결말부의 아쉬움을 얘기하는 제보자의 태도에서 '중앙에의 욕구'에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서사무가의 수용, 기타

제주에는 三多의 섬이라고 한다. 그런데 설화(전설)를 포함하여 누군가는 四多의 섬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제주지역에는 설화가 많다는 것인데, 그중에 서사무가를 수용한 설화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설촌유래가 무속설화로 설명되는 마을²⁰⁾이 있을 정도로 무속과 제주도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천지왕 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문전본풀이, 세경본풀이, 사만이본풀이 등의 일반신본풀이와, 당신풀이 및 조상신본풀이 등 서사무가의 설화적 수용²¹⁾ 중에서도 문전본풀이를 설화화하여 수용한 '남선비

19) 현길언·김영화,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精神 考究」, 『제주대학논문집12』 (제주대학, 1980), 174쪽.

20) 북제주군 송당리.

21) 서사무가의 설화수용에 관해서는 강정식, 「설화 구연자의 서사무가 수용양상 시고」, 양순필 박사 회갑기념 어문학논총 간행위원회편, 『어문학논총』

이야기'류의 설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서사무가에비해 처와 첩의관계라는 이러한 유형이 제주에 많이 수용되는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²²⁾ 일반설화에서는 드물게나타나는 처첩(혹은 첩과 전설자식)간의 갈등이 유독 서사무가인 '문전본풀이'를 설화화한 것에 많다는 것은 재고해볼 만한 일이다.

이처럼 앞서 거론된 장사설화나 무가와 관련된 설화가 제주설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임의적 분류에 지나지 않다. 다시 말해 각각의 설화는 서로 넘나들이 있는데 장사이면서 풍수, 혹은 장사이면서 무가 등 서로 확인한 구분을 짓기 힘들다. 덧붙여 지역간 갈등이 엿보이는 설화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아기장수형 설화, 당설화, 풍수설화등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토와 제주간, 중국과 우리나라, 중국과 제주, 제주와 일본, 우리나라와 프랑스등 대부분이 대외적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부 지역내의 지역간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설화가 몇 있어 흥미롭다. 『제주설화집성』의 '장사 흥맹통',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모관사람과 정의 사람', 『제주도 전설』의 '은평리의 청룡', 『한국구전설화』의 '목안 사람과 정의 사람', 『남국의 전설』의 '모관 양반과 사냥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 '정인 양반과 모간 양반' 등이 그 예이다. 모관(제주성내)과 정의간의 갈등이 엿보이는 것은 지역내에서도 마을간의 갈등이 존재했고, 성안 사람들의 성격과 정의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는 데 흥미있는 이야기라 할 만하다.

Ⅲ. 풍수설화의 양상

풍수란 말은 중국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이라는 사람이 쓴 『葬書』에

(학문사, 1993)을 참고 바람.

22) 허춘은 제모의 악함이 드러나는 문전본풀이의 첩은 제주여성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앞의 논문.

“죽은 사람은 생기에 의지하여야 하는데……그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 그래서 바람과 물을 이용하여 기를 얻는 법술을 풍수라 일컫게 되었다.”라는 기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²³⁾이다. 이 풍수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국문학, 민속학, 종교, 사상, 지리학, 건축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왔고 그에 따른 인식도 일종의 미신, 관상학(觀相學), 신앙, 전통건축사상, 방술(方術), 민간신앙, 원시신앙, 음양오행사상과 효도사상의 결합체계 등²⁴⁾ 다양하게 정의 혹은 설명되어왔다. 이와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최창조는 풍수지리란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윤리구조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추길피흉(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기술학(相地技術學)으로써, 이것이 효의 관념이나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이기적인 속신(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토지관의 표출²⁵⁾로 보았다.

우리 나라에 이러한 풍수가 도입된 게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신화시대부터 이미 풍수사상이 존재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의 내용을 보면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가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라는 풍수적 사유가 등장하며, 탈해왕이 토함산위에 올라 초사흔날 달처럼 생긴 지세를 보고 자기가 살 터라고 생각하여 사술로써 그곳을 빼앗은 이야기, 선덕여왕이 여근곡(女根谷)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보고 백제의 매복군사를 발견하였다는 설화 등 일찍부터 우리나라에도 풍수적 사유체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풍수관념이 확고한 체계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신라말의 도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도선은 당시 유행하던 풍수설을 집대성하였고, 개경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46쪽.

24) 풍수에 관한 제 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민음사, 1984). 23~24쪽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25) 최창조, 위의 책, 32쪽.

에 수도를 정함으로써 고려 개국의 이념적, 실리적 바탕을 마련하였다.²⁶⁾ 이러한 풍수사상은 신라말에서 조선조 초기까지는 수도를 정하는 등의 양택풍수에 중심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유교국가의 이념이 확립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리고 효의 관념이 적극적으로 부각되면서 음택위주의 묘지풍수로 전환되었다.

풍수는 크게 둘로 나뉘어 생자(生子)의 거소(居所)를 취급하는 양적(陽的)인 풍수와 사자(死者)의 거소(居所)를 다루는 음적(陰的)인 풍수로 나뉘는데²⁷⁾ 양적(陽的)인 풍수에는 양기(陽基)와 양택(陽宅)의 두 가지가 쓰인다.

이렇게 구분될 경우 풍수는 세가지로 구분하는데, 도읍이나 마을 등 취락풍수에 있어서는 양기풍수라는 용어를 쓰고, 개인의 주택에 있어서는 양택풍수라는 말을 쓰며, 산소의 자리잡기 등 묘지풍수에 있어서는 음택풍수라는 개념을 사용할²⁸⁾ 수 있다. 또한 양기풍수에는 단택, 비보압승²⁹⁾형이 포함될 수 있고 양택풍수에는 주택이나 건물등 직접 거주하는 장소에 관련된 설화가 있겠다. 그리고 음택풍수에는 그 설명하는 대상의 비중에 따라서 지관(명풍)담, 상주담, 명당담이 있겠다.

1. 음택풍수설화

풍수설화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형에 어떤 인문적인 의미를 더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을 해석하려는 풍수지리설에 간한 여러 가지 전설 즉, 지형설명, 풍수(지관)의 행위, 그리고 그 지형으로 인한 여러 결과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다.

제주에 전해지는 대부분의 풍수설화는 묘자리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49쪽.

27) 최창조, 앞의 책, 251쪽.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650쪽.

29) 신월균, 『풍수설화』(도서출판 밀알, 1994), 180쪽.

이러한 음택풍수설화를 내용과 대상에 따라 살펴보면, 지관 곧 명풍에 관한 이야기, 상을 당한 상주의 이야기, 응험을 드러낸 명당의 이야기 등 전승층의 시선이 어는 것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이야기군으로 전승된다.³⁰⁾

1) 명풍담

지관에 관한 이야기로 명지관, 가짜지관, 지관의 실수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관이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왕가에서 능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의 지리를 살피기 위해 땅 보는 일을 맡게 된 자를 가리킨 데서 유래하였고, 이러한 관리명에서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풍수서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되다가 모든 풍수사를 의미하는 범칭이 되었다³¹⁾고 하는데 제주에 전해오는 설화중 이러한 지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³²⁾와 같다.

30) 오종근은 「남도지방의 풍수설화 연구」, 『인문논총1집』(동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에서 풍수설화를 적덕형, 명당파쇄형, 금기반복형, 단맥형, 아기장수형 등으로 분석하였고, 임갑량은 「음택풍수설화연구」, 『한국학논집13』(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6)에서 음택풍수설화를 명풍담, 명당손 상주담, 명당발복담의 세 가지 이야기군으로 나누어 이에따른 하위 분류안을 시도하였다. 또한 신월균은 위의 책에서 지관 이야기, 명당을 얻은 이야기, 명당을 잃은 이야기, 단맥과 비보압승, 명당쓰고 발복한 이야기 등으로 설화를 소개하였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풍수설화는 양기, 양택, 음택의 세 가지 층으로 분류되며, 다시 음택풍수설화는 명풍담, 상주담, 명당발복담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31) 신월균, 앞의 책, 38쪽.

32) 편의상 『국문학보』는 ‘학보’, 『백록어문』은 ‘어문’, 『학술조사보고서』는 ‘보고서’, 『제주설화집성』은 ‘집성’, 『한국구비문학대계』는 ‘대계’로 각각 표기한 다.

국문학보 제14집

제 목	출 전	비 고
소목사와 더덕양가자	어문(1)	
소목사와 고전적	어문(5)	
남서구	어문(6)	
삼정송육판서난 명당	어문(8)	
택일 잘보는 사람(1)	어문(12)	
택일 잘보는 사람(2)	어문(12)	
택일 잘보는 사람(3)	어문(12)	
지리관 처남매부	어문(13)	
도원리 강훈장	보고서(7)	
고전적 이야기	학보(11)	
지관 이야기	학보(12)	
고전적(2)	집성	
고전적과 월계진좌수	집성	
고전적(3)	집성	
문곡성	집성	
백정시	집성	
고전적 부친묘	집성	
강태종 훈장	집성	
별도봉 오씨 선묘	집성	
영산이골	집성	하인이 잡음
고전적(4)	집성	
대정당장	집성	
어떤 신안	집성	
조만능의 묘	대계(9-1)	
가시나물 김선생	대계(9-2)	
이신	대계(9-3)	명당성공, 덕안해실패
배 큰 강훈장	대계(9-3)	
지침서	대계(9-3)	
표지덕에 부자된양씨	대계(9-3)	
명도선생과 고전적	대계(9-3)	
오찰방과 정지관	대계(9-3)	
도원리 강훈장	대계(9-3)	
지지관	대계(9-3)	
고전적	대계(9-3)	
고전적	제주도 전설	

고전적부친묘	제주도 전설	
오훈장과 정지관	제주도 전설	
현지관	제주도 전설	
지관 김귀천	제주도 전설	
고전적(2)	남국의 민담	
오조리 오훈장(2)	남국의 민담	
이십삼두 팔죽지	남국의 전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음택풍수설화중 명풍에 관한 이야기는 총 42개가 된다. 고전적,소목사, 백정시, 강태종, 진좌수, 문곡성, 정지관,현지관, 김귀천, 오훈장, 강훈장, 등 많은 인물이 지관으로 나오지만 고전적의 이야기가 12개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고전적은 조선 영조때의 실존인물이며, 본명은 고흥진으로 전적이란 벼슬을 하였기에 고전적이라 불렀다.³³⁾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았고 그만큼 널리 회자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2) 상주담

명당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왔다. 특히 그것이 상을 당한 상주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절박한 문제가 된다. 묘를 잘 써야 해가 없고, 집안과 후손이 발복한다는 생각은 며칠, 혹은 몇 해가 걸리더라도 명당을 찾아 헤매었다. 심지어 남의 선산 혹은 이름난 명산에 암암리에 매장하는 암장(暗葬)을 하거나, 남의 임야나 묘지를 강탈하여 매장하는 능장(勒葬)을 하였고³⁴⁾ 마을의 공동우물에 투장하는등 이웃의 피해가 있든 없든 명당이라고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상주가 명당을 얻게되는 계기로 우연하게 얻거나, 덕을 쌓아서 얻는

33) 김두봉. 『제주도설기: 탐라지보유』. 윤치부, 『제주설화에 나타난 풍수사상』, 『덕재 신용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34) 윤치부, 위의 논문.

경우가 있다. 음택 풍수설화중 이렇게 상주의 행위에 중심을 두고 전승되어온 설화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제 목	출 전	비 고
묘 잘써서 부자된 3형제	어문(13)	
시신이 정한 명당	어문(13)	우연
양씨 묘	학보(7)	적당
동래 화지산 산터	집성	
변씨 입도 선묘	집성	우연
파혈된 명당	집성	실수로 발복 안됨
강초간물	제주도 전설	명당 획득 실패
변태 입도선묘	제주도 전설	우연
고전적(1)	남국의 민담	
고전적(2)	남국의 민담	
금개관광 만석궁지지	남국의 민담	우연
계와시광 변관지지	남국의 민담	우연
매촌 장남산	남국의 민담	명당 뱃김
지혈난 산터	남국의 민담	욕심, 망함
왕호지지	남국의 민담	행운

모두 15개의 상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명당을 획득하는데 성공하는 이야기가 11개,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나중에 망하는 이야기가 4개이다. 그리고 우연히 획득하는 경우는 6개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상주의 노력에 의한 경우는 '양씨묘'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살펴볼 때 명당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찾아지는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다는 사고가 지배 하였음을 알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효자나 남에게 덕을 베푸는등 선한 사람이 아니며는 명당을 차지할 수 없으며, 명당을 획득해도 욕심을 부리거나 올바르지못한 행동을 하게되면 발복하는데 실패한다는 교훈을 줌으로써 설화의 향유자를 교화하는 기능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3) 명당담

명당담은 명당에 묘를 써서 발복을 했다거나 혹은 관리의 소홀, 금기 위반 등으로 인하여 명당자리가 효험을 상실하였다는 이야기들로서 주로 인물(명풍, 상주)의 행위보다 어떠한 지형이 명당자리라는 단순한 명당지형설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음택풍수설화의 대부분이 이 명당을 중심으로 구전되는데 제주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도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제목	출전	비고
외눈박이 산터의 신동	어문(1)	
묘자리 이야기	어문(5)	실패
예촌 양집의 명묘	어문(5)	상주적덕, 발복
친부묘터 빼앗은 딸	어문(10)	실패
둔지봉 풍수 이야기	어문(11)	
소목사와 오택묘	보고서(7)	실패
인장묘발지	보고서(7)	금시발복
당릉	보고서(7)	
장사나게한 명당자리용진굴	보고서(8)	금시발복, 아기장수형
사후에 생남지	보고서(8)	사후발복
병약과 강별장	학보(4)	명당 파쇄
딸은 출가의인	학보(9)	실패
효부 이야기	학보(9)	실패
개미목 명당자리	집성	실패, 아기장수
천년쥐	집성	발복
날개돋은 아기	집성	실패, 아기장수
개가 가리킨 무덤	집성	발복, 영리한 개
가시오름 강당장	집성	파혈+발복
물속 강씨무덤	집성	발복, 수중명당
명구와 포수	집성	
오별장	집성	실패
아흔아홉골과 문스랑	집성	파혈, +양기풍수

국문학보 제14집

제주 육대명혈과 주씨 무덤	집성	+ 양기
제주 사람이 창나라 황제가 됐던 사연	집성	수중명당, 발복
이씨 선묘	집성	발복
강별장	집성	+비보압승
경주대 입도선묘	집성	실패+단맥
뜻을 못 편 고좌수 자손들	집성	금가어겨 파혈 +아기장수
장사나게 한 명당자리 용진굴	집성	파혈+ 아기장수
명당 한수	대계(9-1)	명당파쇄
두력산	대계(9-1)	+아기장수
광령 현별감내 무덤	대계(9-2)	실패
오찰방	대계(9-2)	+아기장수
시체와 비단 바꾸어 성공한 사람	대계(9-2)	우연명당, 발복
공 깊은 의붓자식	대계(9-2)	
조빈석부지	대계(9-2)	금시발복
감목관 김씨대	대계(9-2)	발복
이팔	대계(9-3)	실패
비둘기 날아버린 묘	대계(9-3)	실패
헌마공신 김만일	대계(9-3)	발복+양택
날개 돋은 강정 김씨자손	대계(9-3)	+아기장수
날개 돋힌 아이	대계(9-3)	+아기장수
소목사와 오택묘	대계(9-3)	실패
딸이 친정 명당자리를 빼앗은 이야기	대계(9-3)	실패
감목관 김덕	제주도전설	
가시오름 강당장	제주도전설	실패
한연 한배임계	제주도전설	+아기장수
문국성과 소목사	제주도전설	명당파쇄
산방산 금장지	제주도전설	
군산 금장지	제주도전설	실패
새비육	제주도전설	상주의 실패
산방산 금지	남국의 민담	
보재기 천주사위	남국의 민담	수중명당, 발복
정당장 유인	남국의 민담	실패
목수의 개미목 설	남국의 민담	명당파쇄
산터광 흰비둘기	남국의 민담	명당파쇄
정의 상교터	남국의 민담	발복

오죄수광 누이	남국의 민담	실패
복인봉길지	한국구전설화	발복, 상주의 우연명당획득

위의 표에 정리된 것처럼 명당에 관한 이야기는 총 59개가 전해진다. 명당에는 땅위 만이 아니라 물속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속 강씨 무덤’이나 ‘보재기 천주사위’ 등을 보게되면 보편적인 명당의 관념을 넘어서고 있다.

수장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신라 문무왕의 경우에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수장을 하였고, 대왕암이란 수중릉이 전해져 오지만 이 경우는 특수한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수장에 관련된 설화는 미비하다.

대체적으로 명당에서 발복한 이야기와 명당을 썼지만 금기를 어기거나 실수, 혹은 욕심 등으로 인해 명당을 빼앗기거나 파멸되어 발복에 실패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명당획득에 성공한 이야기가 17개를 차지하고, 획득에 실패한 이야기는 29개를 차지한다.

이렇게 실패담이 많은 이유는 설화의 교육(교훈)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효도 혹은 남에게 선행을 하면 명당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금기를 어기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좋은 자리-기득권-도 빼앗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더 경계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자생손형인 ‘사후에 생남지지’는 본토에 전해지는 설화와 유사하다. 일찍 죽어서 자손을 남기지 못하면 대가 끊어진다는 것이 되므로 엄청난 죄로 인식되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를 이어야 했기에 명당을 찾을 수밖에 없다. 죽은 자식이 산 여자와 정을 통하는 이야기는 고소설에서 자주 나온다.³⁵⁾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신표를 받은 여인이 아들을 낳은 후에 사자의 집을 찾아 그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으로

35)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받아들여지고, 대를 잇게 된다는 이야기다. 신화나 고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명당에 관한 이야기중에 금시발복형에는 ‘寅葬卯發之地’와 ‘장사나게 한 명당자리 용진굴’이 전한다. 명당을 쓴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 전개가 본토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나 인물간의 관계가 서로 수평적이다. 본토의 설화를 보면 가난한 머슴혹은 총각이 주인집 과부등과 인연을 맺거나 부잣집딸과 만나 여인이 갖고 있는 재물로 부자가 된다³⁶⁾는 내용이다.

반면에 ‘인장묘발지지’의 내용을 보면,

하루는 어떤 여인이 지나가다가 같이 살자고 청했다. 머슴은 은근히 마음이 쓸렸지만, 罪지은 몸이라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女人은 自己도 總家를 背反하고 親庭에서 쫓겨나 罪지은 몸이라 하였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뜻이 맞아 같이 살게 되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 상주가 여인의 재물에 의해 성공하는 내용은 없다. 서로의 뜻이맞아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하지 여인의 도움이 있어서 발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주여인의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한 영향³⁷⁾이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 양기풍수설화

1) 비보압승형

양기풍수에는 비보압승형, 단맥형, 기타지형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여

36) 신월균, 앞의 책, 211~214쪽.

37) 김혜숙,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4집(인문·사회과학편), 482쪽.

기서는 단맥형설화도 양기풍수에 포함시켰다. 먼저 비보압승설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양기는 한 번 결정되어버리면 옮기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비보설(裨補說)이 등장하게 되었다.³⁸⁾ 신라와 고려때에 사찰을 건립할 때 이러한 비보설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비보압승은 풍수설에 의해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인공적으로 보완하거나 악운이 서린 지형에 해하여 인위적인 조형물로 악운을 누르고, 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 자연적으로 주어진 명당의 지기(地氣)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명당을 만드는³⁹⁾ 것이다.

조사된 설화들을 도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제 목	출 처	비 고
강별장	집성	
고성선돌	집성	
오백장군	제주도 전설	
강별장	제주도 전설	
대림의 선돌	제주도 전설	
팔로담	보고서(6)	
里名유래	어문(1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비보압승에 대한 이야기는 무시될 정도로 미비하다. 대표적인 예로 ‘대림의 선돌’을 보면 아래와 같다. 내용이 짧아 전문을 옮긴다.

또 여기 그 아랜 가민, 팔로담이라고 헌 거세기가 이십쭈게. 이, 것, 팔리

38) 최창조, 앞의 책, 255쪽.

39) 신월균, 앞의 책, 180쪽.

(官吏)엔 쓰는 관짜 하고, 이, 저 종노(奴)째. 어뎡허연 팔로담(塔)을 저저 세웠놓고 허니간, 팔로담을 큰 고성 성(城)것지, 막, 이 집만이 새여난 잇수다게, 지금도. 웨나 험 적에면, 여기 정이 군청 잇는 때에, 이 사령7튼, 그, 저, 그 관청에 부속된, 그, 저, 사람들이 하도, 이제 억세거든 양. 잘, 이제, 그 옷 사름 말을 잘 아이 들으니간, 그게 무슨 이유로 안 들은고 허니간, 이 공문(公門)동산 아길 짝엔 미외엔 현 산(山), 저, 가시리(加時里) 알력적에 매오름을 뵈이니간, 그걸 겐다고 해도, 미오름을 막은 겁쥬, 그걸. 여기서, 이제, 그 매오름을 못 보게. 돌로 싸앗주게. 쪽읍엔 흑 담아실꺼라, 베졌디서 보기는 먼막 돌이우다게.(『학술조사보고서 제6집』, 46~47쪽)

2) 단맥형

단맥형설화는 비교적 많이 전해진다. 명당설정의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인 혈을 끊어 생기를 흩어지게 하거나 정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중간에 맥을 끊는 것을 단맥이라고 한다. 단맥에는 개인과 지방 그리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로 전개된다⁴⁰⁾고 하는데 제주지역에 전승되는 설화들은 대부분이 '고종달형 전설'로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⁴¹⁾ 본토설화에는 이러한 단맥을 실행하는 사람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 청군(淸軍)장수, 송강 정철 등으로 나타난다.

현길언에 의하면 고종달형 전설이라 함은 '제주는 원래 왕후지지(王侯之地)인데 이 사실을 안 중국왕(또는 고려왕)이 고종달을 제주에 파견, 곳곳의 지혈(地穴)을 끊어버린 결과 제주에는 생수(生水)도 왕도 나지 않게

40) 신월균, 앞의 책, 171쪽.

41) 고종달은 중국에서 보낸 풍수사라고 전해지며, 혹은 중국에서 고려로 귀화하여 벼슬을 하였다고 전한다. 호종달, 고종달, 고종다리 등으로 전승되며 드물게 일본에서 파견된 풍수사라고 이야기되기도 있다. 지역간(중앙에서 파견된 풍수사) 갈등이 엿보이는 이야기도 몇 전하나 대부분이 나라(중국에서 파견된 풍수사)간, 다시말해 제주로 대표되는 우리 나라와 중국간의 갈등을 단혈이라는 모티브로 전승되어왔다.

되었다'는 개요의 단혈을 내용으로 한 풍수(風水)전설을 말한다.⁴²⁾ 이러한 단맥이 나타난 제주설화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목	출처
강별장	집성
고성선돌	집성
오백장군	제주도 전설
강별장	제주도 전설
대림의 선돌	제주도 전설
팔로담	보고서(6)
里名유래	어문(11)

위에 조사된 것과 같이 제주의 단맥설화에서는 본토의 단맥설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어송이나 정철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도에 샘이 드물다는 지질적 조건과 인물을 연관시켜 숙명적으로 인물이 태어날 수 없는 땅임을 설명⁴³⁾하는데 이러한 제주사람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설화들이다. 이와같은 이야기들을 공통되는 부분을 종합하여 모티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 왕은 제주가 왕이 날 땅임을 안다.(왕이 날 땅)
- ② 왕이 나지 못하도록 풍수사 호종단을 제주에 파견한다.(풍수사 파견)
- ③ 호종단은 제주에 와 여러 곳의 지혈을 끊어 버린다.(단혈)
- ④ 그 결과 제주에는 왕도 나지 않고 생수도 드물게 되었다.(불모의 땅)⁴⁴⁾

풍수적으로 명당인 제주는 인물이 나올 땅이라서 풍수사를 파견하여 그 씨앗을 없애고자 하는 의식이 들어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민은 척박한 땅을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에 살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현

42)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홍성사, 1981), 69쪽.

43) 위의 책.

44) 위의 책, 85~86쪽.

재의 고생을 언젠가는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이겨내고 있다.

3) 기타 지형

양기풍수설화중에 비보압승형이나 단맥형설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들을 여기에 모았다.

제 목	출 처
아혼아홉골	어문(6)
쟁기리동산	집성
당산봉과 삼반석	집성
아혼아홉골과 문스랑	집성
제주 육대명혈과 주씨무덤	집성
유반석과 무반석	제주도 전설
군산에 얽힌 설화(3)	학보(4)
연복정	제주도 전설
대정의 문과조사	제주도 전설
은평리의 청룡	제주도 전설
삼읍 상교터	제주도 전설
우양호사로 둘러싸인 제주도	한국구전설화
한라산의 아혼아홉골	한국구전설화

자연적인 결합에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특정한 시설로 보충하여 명당을 만든다는 비보압승의 내용이나 명당의 혈을 인위적인 힘으로 없내는 단혈의 모티브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기타사항으로 분류하였다.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제주도편』(평민사, 1992)에 실린 ‘漢擊山의 아혼아홉 골’의 전문을 아래에 옮긴다.

제주시에서 南 쪽으로 보민 漢擊山 중턱에 산 고랑이 마치 밧 고랑처럼 질게 내려와 잇썬다(잇습니다). 이 고랑에(이) 아혼아홉 골이어서 이곳을 아혼아홉 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골이 하나만 더 잇어 백 골이 되엇더라민

지주에도 호앙이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잇어 猛獸도 살게 되엇일 텃디 아흔아홉 골이 되여서 큰 짐성이 못 살게 되엇다고 합니다.

한루신(漢孺山)의 山골이 백 골이 되엇드라민 지주(濟州)에도 왕이 있고, 서월(서월)이 되엇일 텃디 산골재기가 아흔아홉 골이 되어서 지주에는 王도 엇고(없고) 서월도 되지 안헛다 합니다.(201쪽)

하나가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은 일종의 결여담으로 설화의 기본 모티브에 속한다. 불모지인 척박한 제주도에서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⁴⁵⁾을 일종의 풍수적 사유로 돌리고 그것에서 위안을 삼아왔음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3. 양택풍수설화

양택풍수사상과 양기풍수사상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양기풍수사상의 모습으로 수용되어왔다⁴⁶⁾고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양택과 양기를 구분하였다.

양택풍수는 앞서 설명 하였듯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양택설화는 음택이나 양기설화에 비해 몇 되지 않

45) 제주도는 지질상 물이 귀했고 바람이 많아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많은 진상품에 의해 어려운 삶을 살았다.

46) 윤치부, 앞의 논문, 108쪽. 윤치부는 양기·양택풍수설화와 음택풍수설화로 구분하여 분류안을 마련하여 제주의 풍수설화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고도 여기에 도움을 얻은 바가 크다. 그런데 그의 분류안을 따르면 '천년취'(『제주설화집성1』)를, 양기·양택풍수설화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성급한 분류라고 본다. '일대천손지지'를 구하여 많은 자손을 남겨된다는 분명한 음택풍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성목과 산방덕', '신선고장의 개'(『제주도 전설』)를 양기·양택풍수에도 넣고 음택풍수에도 포함시켰다. 여기에도 묘자리에 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음택풍수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산터를 다룬 부자'(『남국의 설화』)를 음택풍수에 포함시켰으나 장례준비에 대한 이야기지, 명당 혹은 그 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므로 음택풍수라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는다. 이것은 조선조 이래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조상에 대한 효의 관념이 사회 문화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음택풍수의 성행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조사된 양택풍수설화는 아래와 같다.

제 목	출 처	비 고
명당자리 집터 배엽바리	학보(4)	
깊신장수와 울장우리황룡	집성	
세 발 달린 개와 여우(1)	집성	
물장오리 용과 어도리 이찰방	집성	
고성목과 산방덕	제주도 전설	
노형동 광평당	제주도 전설	
삼읍 상교터	남국의 민담	
배질력 뱀당장	대계(9-3)	
현마공신 김만일	대계(9-3)	
*고전적(1)	집성	양택설화이면서 명풍담

생인(生人)이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된 설화는 위 표에서 보게되면 10개가 된다. 이같이 양택풍수는 설화 전승자들에게 별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음택풍수설화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신고있지가 못하다. 이야기로 별 환영을 못받은 대신에 이와같은 양택풍수는 생활면에 있어서 크게 작용 하였다. 본토도 비슷하겠지만 제주도의 가옥 방향이 70% 이상이 남향이고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동향 및 서향이 많고 북향은 극히 저조하다⁴⁷⁾고 한다. 이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양택 풍수사상도 설화화되어 이야기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 보편적으로 전승되어왔다⁴⁸⁾는 사실은 타당성을 갖는다.

47) 吳洪措, 「濟州道の 聚落에 關한 地理學的 연구」(창음인쇄공사, 1974), 112쪽. 윤치부, 위의 논문, 108쪽.

48) 위의 논문, 같은 쪽.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제주설화의 특징을 말하자면 풍수설화가 많다. 제주도에서 편찬한 『제주도 전설지』(1985)를 제외(한49) 총 39권의 학술지와 단행본에 조사된 총 1658여개의 설화중에 157여개가 풍수설화로 나타난다. 민담에 포함되는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유형의 설화가 이 정도가 된다는 상당한 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본토와 떨어진 척박한 고도의 땅에서 차별화되고 무시되는 제주민들의 서러운 삶을 설화로나마 소박한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사무가가 많고 이를 설화화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제주민들의 무속관이 단순한 일대일의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화된 수평적인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제주설화의 특징을 말하자면 풍수설화가 많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에 전승되는 설화는 장사설화와 서사무가를 수용한 이야기들이 많다.

둘째, 이러한 분류는 임의 적이다. 즉 각 유형간의 설화들은 서로 넘나들이 있다.

셋째, 풍수설화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양기풍수와 양택풍수, 그리고 음택풍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음택풍수설화는 그 설명하는 대상의 비중에 따라서 지관(명풍)담, 상주담, 명당담이 있는데 명풍담은 42개, 상주담은 15개, 명당담은 59개가 전한다.

49) 본고에서 『제주도 전설지』를 연구 자료에서 제외한 이유는 내용에 있어 그 제보자와 채록 시기가 이전에 나온 자료와 상당부분 동일하여 기존설화와 추가로 새롭게 채록한 설화를 분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양기풍수설화는 단혈을 모티브로한 고종달형 전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서 척박한 땅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제주민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양택풍수설화는 설화로 구현되지는 않아도 생활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외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소리(창) 잘하는 인물에 관한 ‘남노선이’(『한국구비문학대계9-2』), ‘강필공의 눈물’(『남국의 민담』), ‘충효 박계곤’(『제주도 전설』), ‘명창 박효자’(『제주설화집성』) 등과 사돈집안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동침한 사돈’(『백록어문13』), ‘바지없는 사돈’(『한국구비문학대계9-1』), ‘사돈집 가서 실수한 형제들’(『한국구비문학대계9-2』), ‘미련한 아우’(『한국구전설화』), 제주지역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음담에 관한 얘기인 ‘영리한 아들’(『백록어문10』), ‘열회울’(『학술조사보고서7』), ‘문돌랭이’(『한국구비문학대계9-3』), ‘소제드리’(『남국의 민담』), ‘이썩 삼두 팔족지지’(『남국의 전설』), 그리고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한 ‘산방산 여산신과 나무꾼 총각’(『한국 구전설화』), ‘산방덕’(『남국의 전설』), ‘식산봉의 생성유래’(『제주도 부락지』3), ‘산방산 선녀의 사랑’(『제주설화집성』), ‘영주산과 무선돌’(『학술조사보고서5』), ‘산방굴 사 약수물’(『제주설화집성』), ‘열불열설화로 볼 수 있는 ‘한 보람 없다’(『한국구전설화』), ‘남편원수 값은 이야기’(『국문학보9』), ‘매고부덤’(『제주도전설』), ‘호랑이 김좌수’(『제주설화집성』), ‘매고할망’(『제주설화집성』) 등이 있다.

장사설화나 풍수설화 등은 연구가 많이 되었으나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드문 관계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왜 이러한 유형이 제주에 일반화되지 않는지는 좀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을 차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 문헌>

1. 자료

- 『국문학보』 4집~1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백록어문』 창간호~13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학술조사보고서』5.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7.
 『학술조사보고서』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78.
 『학술조사보고서』7. 제주대학교 학도호국단, 1982.
 『학술조사보고서』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과, 1984.
 『제주도부락지』Ⅲ.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구비문학대계』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국구비문학대계』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전남, 제주도편). 평민사, 1992.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개정판).
 ————.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1976.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개정판).

2. 단행본 및 논문

- 강정식. 「설화 구연자의 서사무가 수용양상 시고」. 양순필박사 회갑 기념논문총 간행위원회편. 『어문학논총』. 학문사, 1993.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김혜숙.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주대학교 논문집 34집』(인문·사회과학편). 1992.
 신월균. 『풍수설화』. 도서출판 밀알, 1994
 오종근. 「남도지방의 풍수설화 연구」. 『인문논총 1집』. 동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 윤치부. 「제주설화에 나타난 풍수사상」. 『덕제 신용준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 임갑량. 「음택풍수설화연구」. 『한국학논집1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6.
- 임홍선. 「제주도 설화에 드러난 제주도민의 의식 연구」. 『제주교육대학논문집13』. 1983.
- 임재해. 「설화 유형분류의 평가와 활용」. 『구비문학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장덕순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4.
- 『제주도지』3권. 제주도, 1993.
-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 최인하. 「한국전설의 유형과 motif의 연구」. 『한국학연구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 한국구비문학회편. 『한국구비문학선집』. 일조각, 198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허 춘. 「설화에 나타난 제주여성고」. 『탐라문화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 현길언·김영화. 「제주설화를 통한 제주도정신 고구」. 『제주대학논문집12』. 1980.
- 현승환. 「설화조사의 성과와 과제」. 『백록어문11』. 백록어문학회, 1995.